Julien Spiewak

Exposition "Corps de style"

Remp’arts

L’artiste
Julien Spiewak
www.julienspiewak.com
http://julienspiewak.wix.com/photographe

Remp’arts
14, rue des Remparts
11360 Durban-Corbières
remp-arts.durban@orange.fr

Sommaire

- L'exposition p. 2
- L'artiste p. 2
- Son travail p. 2

Annexes
- Curriculum vitae de l'artiste p. 3
- Ses photographies (extrait) p. 4
- Dossier de presse (extrait) p. 10

L'exposition

Julien Spiewak exposera son travail à Remparts à partir du 4 mai 2014. Le vernissage de l'exposition sera samedi 3 mai 2014 à partir de 18h en présence de l'artiste.

L'artiste

Julien Spiewak est un photographe français, il vit et travaille à Paris. Il a présenté son travail dans plusieurs expositions personnelles et collectives dans des galeries et musées en France et à l'étranger. Ses photographies sont régulièrement publiées dans des revues d'art contemporain. Julien Spiewak a déjà eu des articles consacrés à son travail dans la presse coréenne.

Son travail

Julien Spiewak travaille sur la place du corps au sein de la photographie. Depuis 2005, il réalise la série *Corps de style* dans des intérieurs de collectionneurs de mobilier d'époque et dans des musées. Chaque image présente un intérieur richement décoré avec un fragment de corps.

Il y a dans la démarche de Julien Spiewak cette parfaite adéquation entre le projet et la réalisation, entre le modèle et le décor, avec ce zeste de fantaisie qui confère à son travail un univers photographique à part entière. Au premier regard, on se laisse prendre par l'aspect du reportage documentaire dans des intérieurs classiques de luxe à destination de magazines de décoration. Les plans d'ensemble des pièces, les gros plans sur des détails du mobilier, l'éclairage frontal… tout concourt dans un premier temps à faire illusion. Cependant, à y regarder de plus près et selon les images, des détails incongrus apparaissent sous la forme de fragments de corps humain. Ils sont plus ou moins intégrés au mobilier où, selon les cas, ils viennent s'y glisser avec humour, grâce, légèreté ou discrétion, se fondant même parfois avec les fauteuils dont ils épousent parfaitement les formes et les courbures. La symbiose est alors parfaite entre les nervures de la peau et celles du bois ou du marbre. Ce même souci d'intégration et d'illusion est poussé jusque dans les légendes détaillées des objets photographiés où vient se glisser, de façon tout aussi subreptice, le prénom des modèles…

Curriculum Vitae de l'artiste

FORMATION

MASTER Photographie,
sous la direction de Jean-Claude Moineau
Université Paris VIII

Diplôme d'Etudes Universitair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Communication Audiovisuelle
Université Paris X

EXPOSITIONS PERSONNELLES

2014 Corps de style
France - Montpellier, Galerie Remparts

2009 Cuerpo de estilo (2005-2007)
Mexique - Mexico, Festival Fotoseptiembre

2009 Hommage à Ba Jin
Fance - Château-Thierry, Musée Jean de La Fontaine

2008 Des corps de style
Belgique - Bruxelles, Galerie NKA + Pascal Polar

2007 L'art de l'intérieur, Présence – Absence
France - Paris, Palais Royal, Louvre - Cab, Ynox

2007 Parlons karen
France - Paris, Maison des Éditions L'Harmattan

2004 Entre rêves et féminités
Défilés de mode 2000-2004
France - Saint-Cloud, Pôle Métiers du livre

EXPOSITIONS COLLECTIVES

2011 Itinéraires photographique en Limousin
France - Limoges, Pavillon du Verdurier

2010 Prix HSBC pour la Photographie, nominé
France - Paris, HSBC, Champs-Elysées

2008 Déplacement
France - Paris, Musée du Montparnasse

2008 Création contemporaine
Belgique - Bruxelles, Galerie NKA + Pascal Polar

2008 Déplacement - Festival Croisement(s)
Chine - Pékin, 798 Art District, Inter Gallery, Sevenstar Main Street

2007 Doucement, nous sommes pressés (avec Andres Serrano, Christian Boltansky...)
France - Paris, Heartgalerie

2007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 - Contemporary Art Festival
Chine - Shangaï

2007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 - Pingyao International Festival
Chine - Pingyao

2007 Nature / Culture ? Contemporary photography in France
Russie - Saint Pétersbourg, Musée de l'histoire de la photographie

2006 Mission photographique "Rue de la Gare" - Mois de la Photo
France - Paris,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2006 Mission photographique "Rue de la Gare" - Pingyao International Festival
Chine - Pingyao

2006 Contre Sens II
France - Paris, Confluences

2006 Contre Sens
France - Evreux, Centre Culturel

PUBLICATIONS

2011 Julien Spiewak, Coprs de style (portfolio)
Corée du Sud – Photo Magazine, vol 521

2009 Fotoseptiembre 2009 (catalogue)
Mexique - Mexico, Centro de la Imagen

2009 Ba Jin, un écrivain du peuple (catalogue)
France - Ville de Château-Thierry

2008 Déplacement - Mission photographique franco-chinoise (catalogue)
Chine - Pékin, 798 Art District, Inter Gallery Sevenstar Main Street

2007 Julien Spiewak, Des corps de style
Art 21, La revue critique d'art contemporain, n°12

Ses photographies

Ses photographies

Ses photographies

Ses photograph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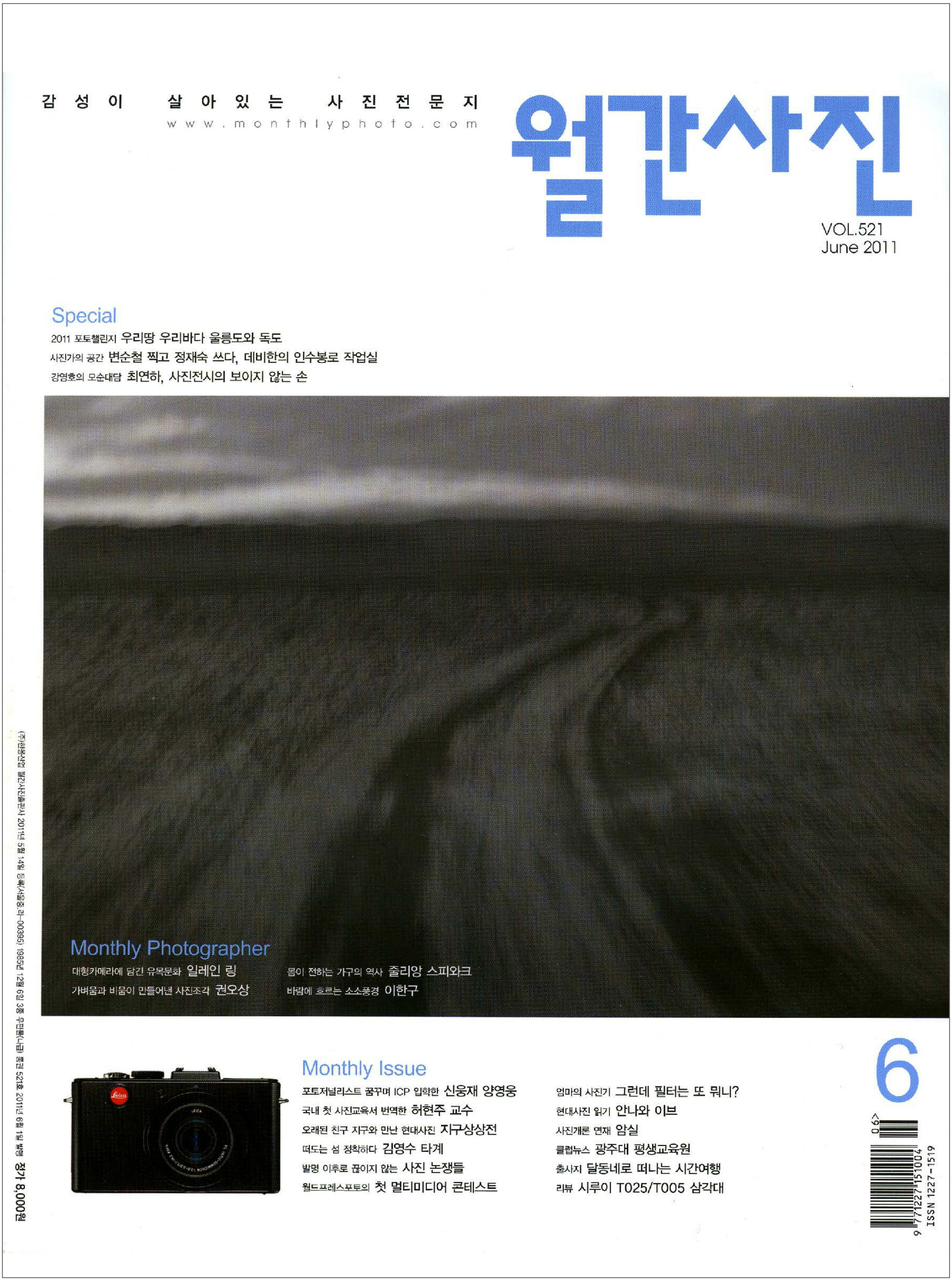
Commode d’époque Louis XV. Miroir de style Louis XV. Carole. Pendule d’époque Louis XVI. Paire de bougeoirs du début du XIX^{e} siècle. 2005

Sans titre. 2005

Tapisserie Le Cerf fragile (atelier français, début du XVI^{e} siècle), Carole, cerf naturalisé. Musée de la Chasse et de la Nature. 2012

Pauline Viardot par Ary Scheffer (huile sur toile, 1840), Émeline, buste de Mme Mention par Théophile Bra (bronze, XIX^{e} siècle), Carole, statuette de Jeanne d'Arc en prière par Marie d'Orléans (bronze, XIX^{e} siècle). 2012. Musée de la Vie romantique, musée de la Ville de Paris.

Marbre d’une commode d’époque Louis XV. Carole. 2005



감 성 이 살 아 있 는 사 진 전 문 지

www.monthlyphoto.com

월간사진

VOL.521
June 2011

Special

2011 포토챌린지 우리땅 우리바다 울릉도와 독도
사진가의 공간 변순철 찍고 정재숙 쓰다, 데비한의 인수봉로 작업실
강영호의 모순대담 최연하, 사진전시의 보이지 않는 손

Monthly Photographer

대형카메라에 담긴 유목문화 일레인 링
가벼움과 비움이 만들어낸 사진조각 권오상
몸이 전하는 가구의 역사 줄리앙 스피와크
바람에 흐르는 소소풍경 이한구

Monthly Issue

포토저널리스트 꿈꾸며 ICP 입학한 신웅재 양영웅
국내 첫 사진교육서 번역한 허현주 교수
오래된 친구 지구와 만난 현대사진 지구상상전
떠도는 섬 정착하다 김영수 타계
발명 이후로 끊이지 않는 사진 논쟁들
월드프레스포토의 첫 멀티미디어 콘테스트
엄마의 사진기 그런데 필터는 또 뭐니?
현대사진 읽기 안나와 이브
사진개론 연재 암실
클럽뉴스 광주대 평생교육원
출사지 달동네로 떠나는 시간여행
리뷰 시루이 T025/T005 삼각대

6

ISSN 1227-1519

(주)한울산업 월간사진출판사 2011년 5월 14일 등록(서울중,라-00395) 1985년 12월 6일 3종 우편물(나급) 통권 521호 2011년 6월 1일 발행 정가 8,000원

Lit de style Louis XV, Mario, 2005

고가구와 신체의 유머러스한 만남

몸이 전하는 가구의 역사, 줄리앙 스피와크

Julien Spiewak

젊은 프랑스 사진가인 줄리앙 스피와크(Julien Spiewak)의 사진들은 최고급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잡지에 나올 법한 사진이나 고품격 앤틱 가구의 판매용 카탈로그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급 가구들과 멋진 실내장식을 하나씩 떼어내어 정밀하게 바라보면 문득, 가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인간 신체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 혹은 '윌리를 찾아라' (Where's Wally?) 게임처럼 이 실내공간에는 몸의 일부분이 교묘히 숨겨져 있으면서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이 몸들은 실내가구의 일반적 용도에 맞게 위치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고 유머러스하게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 엉뚱한 만남은 자연스럽게 몸이 가구의 일부분이 되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그의 사진을 비워 있는 실내공간으로 해석하다 보면 점차 사진의 주인공인 실내가구들이 하나씩 자세히 눈에 들어온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장식미술의 스타일이기도 한 가구들은 누군가에 의해 사들여졌다가 되팔아지는 등 여러 주인을 만나왔다. 또한 여러 다른 장소를 거쳐 왔다. 이처럼 그의 사진 속 앤틱 가구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동화 속 세계처럼 앤틱 가구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몸에 대한 사진적인 고민이 'Corps de style' 시리즈에서 융화되어 보여진다.

줄리앙 스피와크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파리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를 찾았다. 작품 스타일에서 엿볼 수 있듯 깔끔한 그의 아파트는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가구들과 작품에서 본 듯한 앤틱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스피와크는 2010년 HSBC(Prix HSBC pour la Photographie, www.hsbc.fr) 사진상의 10명의 노미네이션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사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주변의 특별한 영향 없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보고 찍기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부터 특별활동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패션쇼에서 모델을 찍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모델과 의상은 몸과 가구의 관계와 비슷했던 것 같다.

'Corps de style' 시리즈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우선 가구를 너무 좋아한다. 특히 앤틱 가구를 좋아하는데, 오래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파리 북쪽에 위치한 생 두앙 벼룩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품격 있는 고가구 상점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가구마다의 스타일과 역사성에 대해 상점 주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단순히 오브제로서 장식미술(Decorative Art)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브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과 그 오브제에 담긴 역사성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다. 가구를 만들었을 장인

Commode d' epoque Louis XV, miroir de style Louis XV, Carole, pendule d' epoque Louis XVI, paire de bougeoirs du debut du XIXeme siecle, 2005

의 손길을 느끼거나, 그가 어떤 영향에서 이와 같은 장식물을 제작했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화장대는 누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주문했을 거야'라는 상상에 잠기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사용했을까' 궁금해졌다. 이처럼 장식미술로서의 고가구는 그 자체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또한 미술사적으로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예술로 느껴진다. 'Corps de style' 시리즈의 작업 초기에는 옷을 입은 인물을 가구들과 함께 촬영했다. 몸의 한 부분이 아닌 인물 전체가 드러나는 사진들에서 가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단지 초상사진처럼 인물만이 돋보였다. 그래서 실내가구와 사람의 인체가 함께 숨쉬는 이미지를 위해 가구들 속에 숨겨진 몸의 한 부분만을 촬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내가구와 몸의 조화가 아름답다. 마치 몸이 가구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 촬영한 사진 중 하나인 'Commode d'epoque Louis XV, miroir de style Louis XV, Carole, pendule d'epoque Louis XVI, paire de bougeoirs du debut du XIXeme siecle'는 긴 제목처럼, 사람의 몸이 커튼걸이 또는 소파의 팔걸이가 된다. 또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 긴 소파 밑의 팔, 커튼 밑에 살짝 보이는 발 등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드러난다. 다소 퍼포먼스적인 작업이기도 하며, 보는 이에 따라 단순한 실내공간 사진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주의 깊게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사람의 몸을 통해 신체의 현존과 부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실내가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

제목이 참 길다. 중성적인 피부의 느낌에서는 모델의 성별을 모르겠지만, 제목에 모델의 이름이 명시되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있다. 제목의 의미가 중요할 듯하다.

제목을 유심히도 보았다.(웃음) 제목은 미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나 소더비의 고가구 경매용 도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진 속에 보이는 앤틱 가구들의 정보를 나열한 것이다. 고가구 사이에 은밀하게 보이

Large canape garni de velours jaune, travail du XVIIIeme siecle, secretaire d'epoque Louis XVI, table de salon de style Louis XV, Aude, paire de fauteuils cabriolets garnis de tapisserie au point a fonds rouge d'epoque Louis XV, tapis d'Orient en laine a fonds bleu et bordeaux, 2005

Canape garni de tapisserie a medaillons fleuris de style Louis XVI, paire de fauteuils a dossier medaille en cabriolet garni de tapisserie a medaillons fleuris d'epoque Louis XVI, Aude. Miroir d'epoque Louis XV, 2005

Commode d'epoque Regence, Adoration des Bergers (ecole hollandaise vers 1600), Aude. tapis de Chine a fond rouge, 2005

Bergere a oreilles en bois core moulure avec frise de rubans de style Louis XVI, Aud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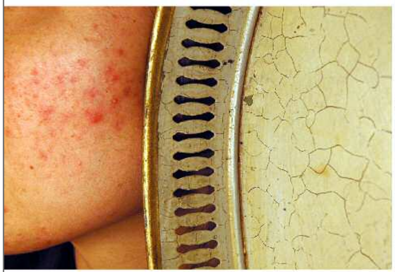
는 사람의 몸처럼 그 성보 사이에 코딜의 이름이 적혀 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나의 몸일 뿐이다. 그들의 이름 역시 가구에 간다.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 놀이처럼 당신의 사진에서 몸은 하나의 놀이가 되었다.

이 시리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몸의 일부분을 실내공간과 함께 보이는 것으로, 숨겨진 몸을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몸과 가구를 근접해서 촬영한 것인데, 이 사진들에서는 몸이 명확히 드러나 더 이상 숨은 몸을 찾아낼 순 없다. 다만 몸과 실내가구의 유사성을 찾는 다른 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 내 사진은 숨겨진 몸을 찾는 놀이뿐 아니라 몸체 가구의 상관관계, 몸의 현존성과 부재성 그리고 시간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의 특성을 깨뜨리기 위해 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도 삽입했다. 이것이 세 번째 작업이다. 'Autoportrait'(자화상)라는 작품은 다른 사진과 달리, 짧은 제목을 달고 있다. 숨겨진 몸을 찾는 관점으로만 내 사진을 보던 사람들은 이 사진 앞에서도 작가인 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찾을 수 없게 되자 당황해하거나 '혹시 그림자로 표현된 것일까?' 추측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나의 신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옛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화, 금속과 천, 나무 등 다양한 마티에르(Matiere)의 조화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포착되었다. 즉 개념적으로 표현된 나인 것이다.

Canape d'epoque Louis-Philippe, Carole, 2005

Commode d'epoque Louis XV, Carole, paire d'embrases, 2005



Plateau peint avec bordures dorees, Elsa, 2006

Sans titre, 2006

작은 서랍장의 일부인 듯한 노란 대리석과 투명한 피부의 정맥이 묘하게 일치된다. 또한 동물 가죽과 털로 만들어진 카펫 위에 놓여진 다리의 털도 잘 어울린다. 사람의 피부와 실내가구의 자연적 소재 즉, 대리석, 가죽 나무 등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고 있는가?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실내공간이 한 눈에 보이도록 풍경사진 구도로 잡아 작업했다. 그러던 중 몸과 앤틱 가구가 가진 자연적인 마티에르에 흥미를 갖게 되어, 몸의 일부분과 가구의 일부분을 클로즈업해 작업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피부는 처지거나 주름지거나 상처가 생긴다. 앤틱 가구들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흔적을 갖게 된다. 또한 피부에 남은 속옷 자국, 여드름 자국 등은 오래된 가구의 페인팅의 균열, 대리석의 흠과 일치하는 시간의 흔적이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작업하지만 후반 보정작업은 거의 하지 않으며, 몸이 살아온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즉 시간과 역사성 역시 내 작업의 중요한 개념이다.

ⓒ All image copyright Julien Spiewak
Julien Spiewak is represented by Gallery Nka+Pascal Polar in Bruxelles(Belgium)
www.julienspiewak.com

Julien Spiewak

Born in 1984
Lives and work in Paris, France

Solo Exhibition

2009 Cuerpo de estilo(Festival Fotoseptiembre, Mexique–Mexico, 2005~2007)
Hommage a Ba Jin(Musee Jean de La Fontaine, France–Chateau-Thierry)
2008 Des corps de style(Galerie NKA+Pascal Polar, Belgique–Bruxelles)
2007 L'art de l'interieur, Presence–Absence(Palais Royal, Louvre–Cab, Ynox, France–Paris)
Parlons karen(Maison des Editions L'Harmattan, France–Paris)
A la decouverte d'un autre monde(Etablissement d'enseignement, France–Versailles)

Group Exhibition

2010 Nomine Prix HSBC pour la Photographie(Siege de la banque HSBC, France–Paris)
2008 Deplacement(Musee du Montparnasse, France–Paris)
Selection d'artistes(Galerie NKA+Pascal Polar, Belgique–Bruxelles)
Deplacement–Festival Croisement(s)(798 Art District, Inter Gallery Sevenstar Main Street, Chine–Pekin)
2007 Doucement, nous sommes presses(Heartgalerie, France–Paris)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Contemporary Art Festival, Chine–Shangai)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Pingyao International Festival, Chine–Pingyao)
Nature/Culture–Contemporary photography in France(Saint Petersbourg, Musee de l'histoire de la photographie, Russie)

Chaise longue en deux parties en bois verni dore sur un fond d'argenture, travail regional d'epoque Louis XV, Julien, 2007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방식으로 장소를 섭외하는가?

대부분 고가구 수집가들의 아파트이다. 간혹 앤틱 가구점이나 장식 미술관에서 촬영해보라는 제안을 받지만 그것은 나의 작업 개념과 맞지 않다. 내 작업에서는 주관적인 개인성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보이기 위해 찍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관점에서 앤틱 가구를 촬영한다. 수집가들이 모은 고가구에서는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품처럼 오랜 시간 사용한 흔적이 느껴진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가구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삶의 일부분이다. 삶의 한 부분으로서 가구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고가구 수집가들의 아파트를 찾는다. 먼저 장소를 둘러보고 간단히 스케치를 한 후 어떻게 그 장소의 가구들과 몸을 배치시켜 표현할지를 고민한다.

좋아하는 사진가 혹은 예술가가 있다면 ?

으젠느 앗제(Eugene Atget)를 매우 좋아한다. 1900년대 전후 파리의 실내풍경을 찍은 그의 사진들은 너무나 훌륭하다. 실내의 빈 공간을 찍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실재감까지도 느낄 수 있다. 비록 그의 사진이 화가들의 주문을 받아 찍은 전형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이지만 자료용 사진 이상의 예술적 감동을 준다. 또한 독일 뒤셀도르프대학 출신의 토마스 데만트처럼 실재와 똑같은 사물과 배경을 만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옮겨 실재가 아닌 허구를 담은 사진도 좋아한다. 나와 작업 방식은 다르지만 작품의 컨셉트를 좋아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전시 계획이 있는가?

5월에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리모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리모쥬는 프랑스의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도시로 유명하며, 장식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다. 이 도시와 내 작업의 주제가 관련성이 더욱 돋보일 것 같았다. 또한 브뤼셀에 위치한 전속갤러리 Nka+Pascal Polar를 통해 다양한 아트페어와 그룹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Corps de styles'의 연장선에서 지방에 위치한 앤틱 가구 수집가의 집에서 작업할 계획이다. 이번 작업에서는 몸이 점점 더 사라져갈 듯하다.(웃음) □MP

글 | 심지연객원기자(프랑스), 디자인 | 김성진기자

작은 서랍장의 일부인 듯한 노란 대리석과 투명한 피부의 정맥이 묘하게 일치된다. 또한 동물 가죽과 털로 만들어진 카펫 위에 놓여진 다리의 털도 잘 어울린다. 사람의 피부와 실내가구의 자연적 소재 즉, 대리석, 가죽 나무 등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고 있는가?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실내공간이 한 눈에 보이도록 풍경사진 구도로 잡아 작업했다. 그러던 중 몸과 앤틱 가구가 가진 자연적인 마티에르에 흥미를 갖게 되어, 몸의 일부분과 가구의 일부분을 클로즈업해 작업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피부는 처지거나 주름지거나 상처가 생긴다. 앤틱 가구들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흔적을 갖게 된다. 또한 피부에 남은 속옷 자국, 여드름 자국 등은 오래된 가구의 페인팅의 균열, 대리석의 흠과 일치하는 시간의 흔적이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작업하지만 후반 보정작업은 거의 하지 않으며, 몸이 살아온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즉 시간과 역사성 역시 내 작업의 중요한 개념이다.

ⓒ All image copyright Julien Spiewak
Julien Spiewak is represented by Gallery Nka+Pascal Polar in Bruxelles(Belgium)
www.julienspiewak.com

Julien Spiewak

Born in 1984
Lives and work in Paris, France

Solo Exhibition

2009 Cuerpo de estilo(Festival Fotoseptiembre, Mexique–Mexico, 2005~2007)
Hommage a Ba Jin(Musee Jean de La Fontaine, France–Chateau-Thierry)
2008 Des corps de style(Galerie NKA+Pascal Polar, Belgique–Bruxelles)
2007 L'art de l'interieur, Presence–Absence(Palais Royal, Louvre–Cab, Ynox, France–Paris)
Parlons karen(Maison des Editions L'Harmattan, France–Paris)
A la decouverte d'un autre monde(Etablissement d'enseignement, France–Versailles)

Group Exhibition

2010 Nomine Prix HSBC pour la Photographie(Siege de la banque HSBC, France–Paris)
2008 Deplacement(Musee du Montparnasse, France–Paris)
Selection d'artistes(Galerie NKA+Pascal Polar, Belgique–Bruxelles)
Deplacement–Festival Croisement(s)(798 Art District, Inter Gallery Sevenstar Main Street, Chine–Pekin)
2007 Doucement, nous sommes presses(Heartgalerie, France–Paris)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Contemporary Art Festival, Chine–Shangai)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Pingyao International Festival, Chine–Pingyao)
Nature/Culture–Contemporary photography in France(Saint Petersbourg, Musee de l'histoire de la photographie, Russie)

NOMINÉS 2010

Julien SPIEW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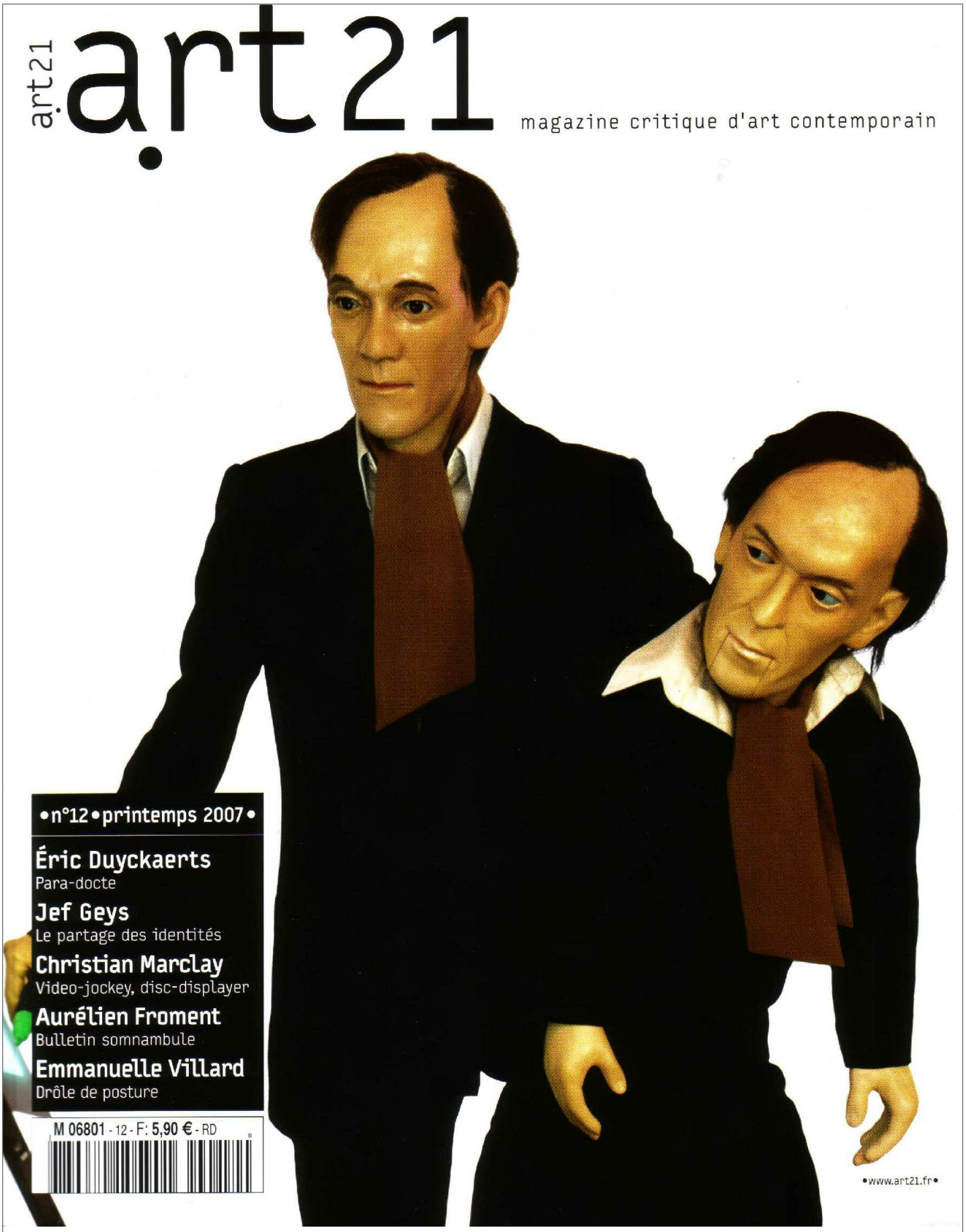
CORPS DE STYLE

Il y a dans la démarche de Julien Spiewak cette parfaite adéquation entre le projet et la réalisation, entre le modèle et le décor, avec ce zeste de fantaisie qui confère à son travail un univers photographique à part entière.

Au premier regard, on se laisse prendre par l'aspect de reportage documentaire dans des intérieurs de luxe classiques à destination de magazines de décoration. Plans d'ensemble des pièces mettant en valeur leur majesté, gros plans sur des détails du mobilier, éclairage frontal, tout concourt dans un premier temps à faire illusion. Cependant, à y regarder de plus près et selon les images, des détails incongrus apparaissent sous la forme de fragments de corps humain. Ils sont plus ou moins intégrés au mobilier où, selon les cas, ils viennent s'y glisser avec humour, grâce, légèreté ou discrétion, se fondant même parfois avec les fauteuils dont ils épousent parfaitement les formes et les courbures. La symbiose est alors parfaite entre les nervures de la peau et celles du bois ou du marbre. Ce même souci d'intégration et d'illusion est poussé jusque dans les légendes détaillées des objets photographiés où vient se glisser, de façon tout aussi subreptice, le prénom des modèles...

Prix HSBC pour la Photographie

HSBC


art21
art.21
magazine critique d'art contemporain
•n°12•printemps 2007•
Éric Duyckaerts
Para-docte
Jef Geys
Le partage des identités
Christian Marclay
Video-jockey, disc-displayer
Aurélien Froment
Bulletin somnambule
Emmanuelle Villard
Drôle de posture
M 06801 - 12 - F: 5,90 € - RD
•www.art21.fr•

Portfolio

Julien Spiewak
Des corps de style

Dans cette série intitulée* Corps de style, *datant de 2005, Julien Spiewak tente de concilier à la fois sa passion pour le meuble d'époque et ses recherches photographiques sur le corps. C'est à la suite d'une collaboration avec un collectionneur parisien qu'il obtient le sésame pour pénétrer dans quelques appartements bourgeois de la capitale.

La sélection de ces photographies procède d'un choix précis qui vise à ne pas réduire cette série, en réalité plus ample, à une simple taxinomie homogène. Cet échantillon, sans pourtant être disparate, n'en demeure pas moins, et ce à bien des égards, relativement hétérogène. Dans ces conditions, il est intéressant de noter le rapport particulier qu'entretient le corps du modèle avec la légende et l'image photographique. Le corps, s'il est toujours fragmenté, finit par se dissimuler à la fois dans l'image et dans la légende. Des corps dans le décor. Dissimulation qui sera soulignée ici par le fait de conserver l'intégralité de la légende dans le corps même du texte.

Le corps du modèle n'est jamais placé par rapport à l'usage préconçu du meuble

Éléments biographiques

•Né en 1984 , Julien Spiewak vit et travaille à Paris.
•**2004 :** première exposition personnelle *Entre rêves et féminités* au Pôle Métiers du livre à Saint-Cloud. Publication *Parcours, Peintures de Michèle Garih photographiées par Julien Spiewak*, Paris, Éditions Le Lien, 2004.
•**2005 :** exposition personnelle *Un monde Karen* présentée aux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et dans plusieurs centres d'art en Île-de-France.
•**2006 :** participe à de nombreuses expositions collectives dont *Contre sens* à Confluences à Paris organisée par Mabel Tapia. Participe à la *Mission photographique Rue de la Gare* exposée au centre culturel de Pignao (Chine) et à l'École Spéciale d'Architecture de Paris. Publication *Parlons karen. Langue et culture (Myanmar - Thaïlande)*, Paris, Éditions l'Harmattan, 2006.
•**2007 :** diplômé d'un Master en photographie, Université Paris VIII. Exposition personnelle *Corps de style* au centre culturel Agora Tête d'or à Lyon.
•**2008 :** exposition personnelle *Corps de style* au Musée de Gajac à Villeneuve-sur-lot.

qui l'accueille, mais se dispose de manière à interroger tout usage préexistant. Dès lors, au lieu de chercher à rendre «la» fonction propre au meuble, le corps face au meuble se construit lui-même comme modèle en détournant l'usage imposé. Ainsi le corps vient se surajouter au meuble sans pour autant révéler une fonction précise. C'est exactement ce que nous montre *Aude. Bergère à oreilles en bois doré mouluré, frise de rubans, style Louis XVI* (p.36), où le corps est étroitement lié au meuble. Le dos et les fesses du modèle s'emboîtent parfaitement dans la courbure du dossier de la bergère. Ce qui n'est pas sans évoquer le travail de Valie Export dans les années 1960-70. Cette artiste autrichienne, par ses actions et performances, entendait s'affranchir tant du puritanisme de la société viennoise de l'époque que du machisme des actionnistes viennois[1]. Même si elle y mettait en œuvre son propre corps, son art ne s'apparentait ni avec le happening ni avec le Body Art, mais avec la communication médiatique. En fait, elle cherchait à utiliser les stratégies de la communication et de la publicité à ses propres fins pour dénoncer à la fois la manière avec laquelle les médias construisent habituellement l'image de la femme[2] et la place faite aux femmes dans la société. À cet égard dans ses *Body Configurations* son corps vient se surajouter à l'architecture de la ville dans des postures inattendues. Dans cette série, elle met en scène son corps successivement sur un banc en béton, s'allonge au pied d'un angle d'immeuble, s'enroule autour d'une colonne ou encore s'inscrit à l'intérieur d'une structure métallique d'un pont. Sans doute *Abrundung* (1976) est-elle l'image la plus caractéristique de cette série, où le corps justement de Valie Export épouse l'arrondi d'un rond-point. Tout son corps est étiré au maximum pour venir se plaquer contre les pierres du trottoir. De la même façon, ici, le corps est ce supplément, qui en cherchant à faire corps avec le meuble semble le compléter. Corps et mobilier sont en harmonie parfaite. Le sujet et l'objet comme par interaction imaginaire accusent d'ailleurs chacun à leur manière le passage du temps. Les irrégularités de la peau, boutons, rougeurs et vergetures répondent aux différentes traces d'usure du meuble, écailles de la dorure, patine des clous de tapissier et stries du velours.

Cependant le gros plan de la photographie, en décontextualisant le corps et le meuble, réduit – hélas – la photographie à un jeu formel de courbe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photographie de *Carole. Commode d'époque Louis XV. Paire d'embrasses de rideaux*, en offrant un plan plus large, semble, de ce point de vue, plus pertinente. Le corps de Carole nue, sans pieds ni tête, rejetés hors cadre, étendu sur la commode, se présente comme une barre de fraction séparant en deux la photographie dans le sens de la longueur et prenant la teinte, d'un côté, du marbre ocre jaune de la commode et, de l'autre, du mur de couleur beige. Cette photographie peut s'appréhender comme le véritable pivot de la série autour duquel s'articulent deux problématiques. Elle marque en effet le passage du corps accolé au corps dissimulé. Ici, ce corps allongé opère comme une transition entre les deux problématiques. Car, à partir de cette photographie, le corps ne se contente pas simplement d'épouser la forme du mobilier, mais cherche progressivement à disparaître dans le décor.

Tout comme le phasme qui, apparemment sans queue ni tête, ressemble à s'y méprendre à l'extension d'une branche sur laquelle il se pose, la dissimulation du corps du modèle dans la photographie *Carole. Canapé d'époque Louis-Philippe* est pratiquement complète. En effet, une vue un peu rapide de l'image ne permet pas de discerner le modèle du canapé. En dépit de l'homogénéité apparente du cliché, notre regard est quelque peu perturbé par un élément qui semble contrarier la construction de l'ensemble. Ce n'est qu'au moment où notre perception se fait plus précise que l'on entrevoit un petit fragment du corps, sans tête ni jambes, qui, comme l'animal, se fond dans le milieu où

1. Cf. Juan Vicente Aliaga, « La vie est entre vos mains. Questions de genre, féminisme et violence dans l'œuvre de Valie Export *», Valie Export, Montreuil, Éditions de l'œil, 2003, p. 82.*
2. Notons que le nom de Valie Export est lui-même un pseudo construit dans l'idée d'une identité comme marque. C'est-à-dire qu'au lieu de chercher à lutter contre la marchandisation de l'art, l'artiste se considère elle-même comme un produit. Ainsi en 1968, elle abandonne le patronyme de son père, puis celui de son époux au profit d'une marque de cigarette autrichienne « Smart Export », Valie étant une abréviation de son véritable nom. Cf. Régis Michel, « Je suis une femme. Trois essais sur la parodie de la sexualité », Op. cit., p. 33.

il vit. Le dos du modèle, dont on ne perçoit qu'un fragment, devient lui-même un coussin parmi d'autres posé sur le canapé. Le corps morcelé se dissimule dans le décor à la manière de l'« insecte brindille » qui, selon Georges Didi-Huberman, « fait de son propre corps le décor où il se cache »[3].

Ce qui, dans le registre de l'idiotie, théorisé par Jouannais[4], peut faire penser à la série de l'artiste Saverio Lucariello dénommée précisément *L'infiltré [The Infiltrator]* (1995-2000) dans laquelle, avec un peu d'attention nous finissons par comprendre que chaque photographie est infiltrée dans son bord par le bout d'une verge[5]. Un excédent qui, placé en rapport ou dans l'indifférence avec le sujet représenté, interroge toujours le spectateur sur la nature de ce bout de chair informe venant parasiter les images.

C'est également en ces termes que Salvador Dalí évoque la photographie comme modèle de la peinture surréaliste, dans la mesure où elle peut introduire ce trouble dans la peinture[6]. En 1937, dans un article de la revue *Minotaure*, Dalí nous fait la description d'une photographie anonyme représentant deux femmes et un homme devant une porte d'entrée, et dont les regards convergent vers l'objectif du photographe[7]. Apparemment, le sujet central de la photographie – ces trois personnages – pose sous l'autorité et la maîtrise du photographe. Cependant Dalí nous invite à dépasser la psychologie des individus représentés, en particulier celui de l'homme plongé dans l'obscurité. Car ce qui intéresse davantage Dalí dans cette photographie, c'est un petit détail hétérogène, qui figure dans l'angle inférieur gauche de la photographie: une petite bobine sans fil. Un objet qui, à l'encontre du corps de Carole sur le canapé ou des infiltrations de Lucariello, sous son aspect anodin, vient démentir la maîtrise totale de la mise en scène. En échappant aux mains expertes du photographe, la bobine sans fil affirme l'aspect excédentaire, le «trop à voir» de la photographie.

Cette logique du double regard s'avère encore plus probante dans la photographie intitulée *Aude. Large canapé garni de velours jaune, travail du XVIIIe siècle. Secrétaire d'époque Louis XVI. Table de salon de style Louis XV. Paire de fauteuils cabriolets garnis de tapisserie au point à fonds rouge d'époque Louis XV. Tapis d'Orient en laine à fonds bleu et bordeaux* (p.41). La lumière plus claire qui inonde ce salon de style, provoque également un découpage d'ombres très contrasté: celles du secrétaire, des deux lampes et des fauteuils se projettent sur le dossier du canapé, le mur blanc et le sol beige. De surcroît, les plis d'secrets du tapis, ainsi que le léger décentrement de l'abat-jour sont autant de micro-détails de la photographie qui contribuent à instaurer un climat étrange. Une inquiétude semblable à celle repérée par Walter Benjamin qui, dans *L'œuvre d'art à l'ère de sa reproductibilité technique*, comparait les rues désertes de Paris au début du XXe siècle, photographiées par Atget, à des lieux du crime[8] qui « inquiètent celui qui les regarde »[9]. Alors même si cette photographie ne possède pas l'efficacité documentaire, devant une telle scène (du crime ?) notre regard finit également par hésiter. Soupçon d'ailleurs redoublé lorsque nous finissons par apercevoir ce fragment de corps (bras ou jambe ?) qui gît sous le canapé. La découpe franche des extrémités associée à une couleur et une matière uniforme n'est pas pour rassurer le spectateur. Nous serions alors tenté par un *blow-up* comme David Hemmings dans le film d'Antonioni. Car, à y regarder de plus près, la nature de ce fragment devient suspecte: appartient-il réellement à un corps humain ou n'est-il qu'un simulacre en plastique ? Toutefois gardons-nous d'une interprétation trop rapide, qui viendrait qualifier ce trouble d'*Unheimlich*, comme Jentsch dans sa lecture du conte d'Hoffmann *L'homme au sable*. À propos duquel, il soutient qu'abandonner le lecteur à l'indécision quant à la nature véritable d'Olympia – s'agit-il d'une personne ou d'un automate ? – est ce qui provoquerait l'effet d'*Unheimlich*. Or, Freud insiste sur ce point avec vigueur, en soutenant que l'enjeu n'est pas du tout de savoir si Olympia est

3. Georges Didi-Huberman, Phasmes. Essais sur l'apparition, *Paris, Minuit, 1998, p. 17.*
4. Jean-Yves Jouannais, L'Idiotie. Art, vie, politique-méthode, *Paris, Beaux-arts Magazine, 2003.*
5. Concernant cette série, voir le catalogue de l'exposition Saverio Lucariello, *Marseille, Images En Manœuvres Éditions, 2000.*
6. Nous pouvons d'ailleurs regretter qu'une telle conception de la photographie n'ait pas trouvé écho dans la peinture. Pour autant ceci donne une raison supplémentaire de rejoindre Rosalind Krauss qui, pour d'autres raisons, valorise la photographie au détriment de la peinture surréaliste. Cf. Rosalind Krauss, « La photographie au service du surréalisme », l'explosante-fixe. Photographie et surréalisme, Paris, Hazan, 2002, p. 15, 19.
7. Salvador Dalí, « Psychologie non-euclidienne d'une photographie », Minotaure, n°7, 1937, p. 56-57.
8. Walter Benjamin, « L'œuvre d'art à l'ère de sa reproductibilité technique » (1935), trad. fr.,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p. 82.
9. Ibid.

ynox™
photo magazine

Invitation

pour 2 personnes

Exposition photographique de
Julien Spiewak
le vendredi 28 septembr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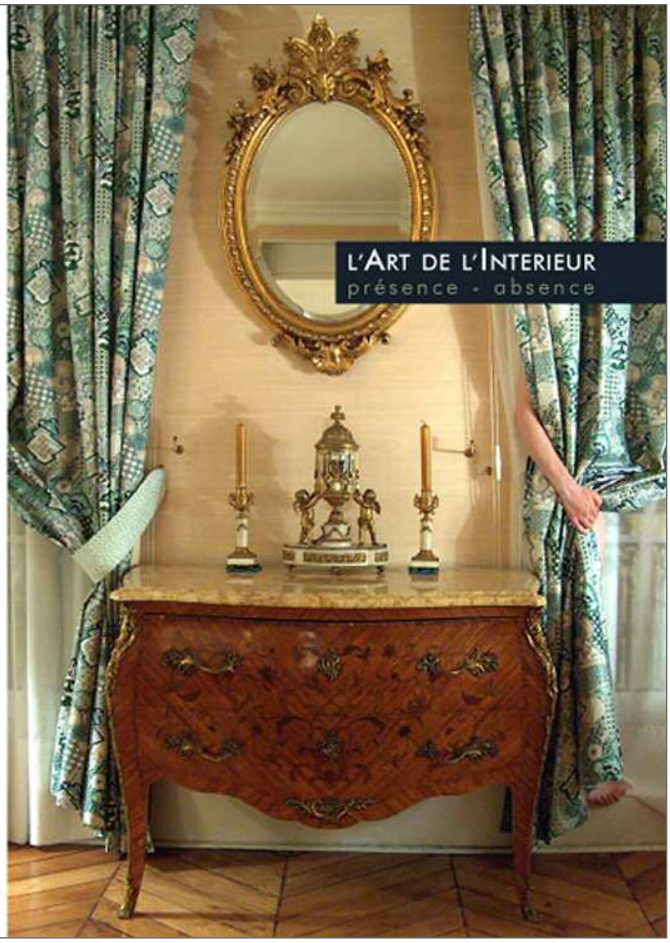
à partir de 22h30 au cab.

Le Cabaret - 2, place du Palais Royal - 75001 Paris

Julien Spiewak questionne les notions de présence et d'absence dans la photographie d'intérieurs. Il vous présentera ses photographies d'appartements de collectionneurs parisiens ainsi que sa nouvelle série réalisée à Pékin dans le cadre des Jeux Olympiques de 2008.

Open bar autour du photographe de 22h30 à Minuit
Live Mix Electro par Tony Truman de 22h30 à Minuit

Confirmation obligatoire sur le site www.ynox-paris.com.
YNOX MAGAZINE - La nouvelle référence PHOTO
231, rue Saint Honoré - 75001 Paris www.ynox.com



ynox™
photo magazine

Réservez cette date!

Exposition photographique de
Julien Spiewak
le vendredi 28 septembre 2007

à partir de 22h30 au cab.

Le Cabaret - 2, place du Palais Royal - 75001 Paris

VOUS ALLEZ RECEVOIR TRES PROCHAINEMENT UNE INVITATION PAR MAIL OU COU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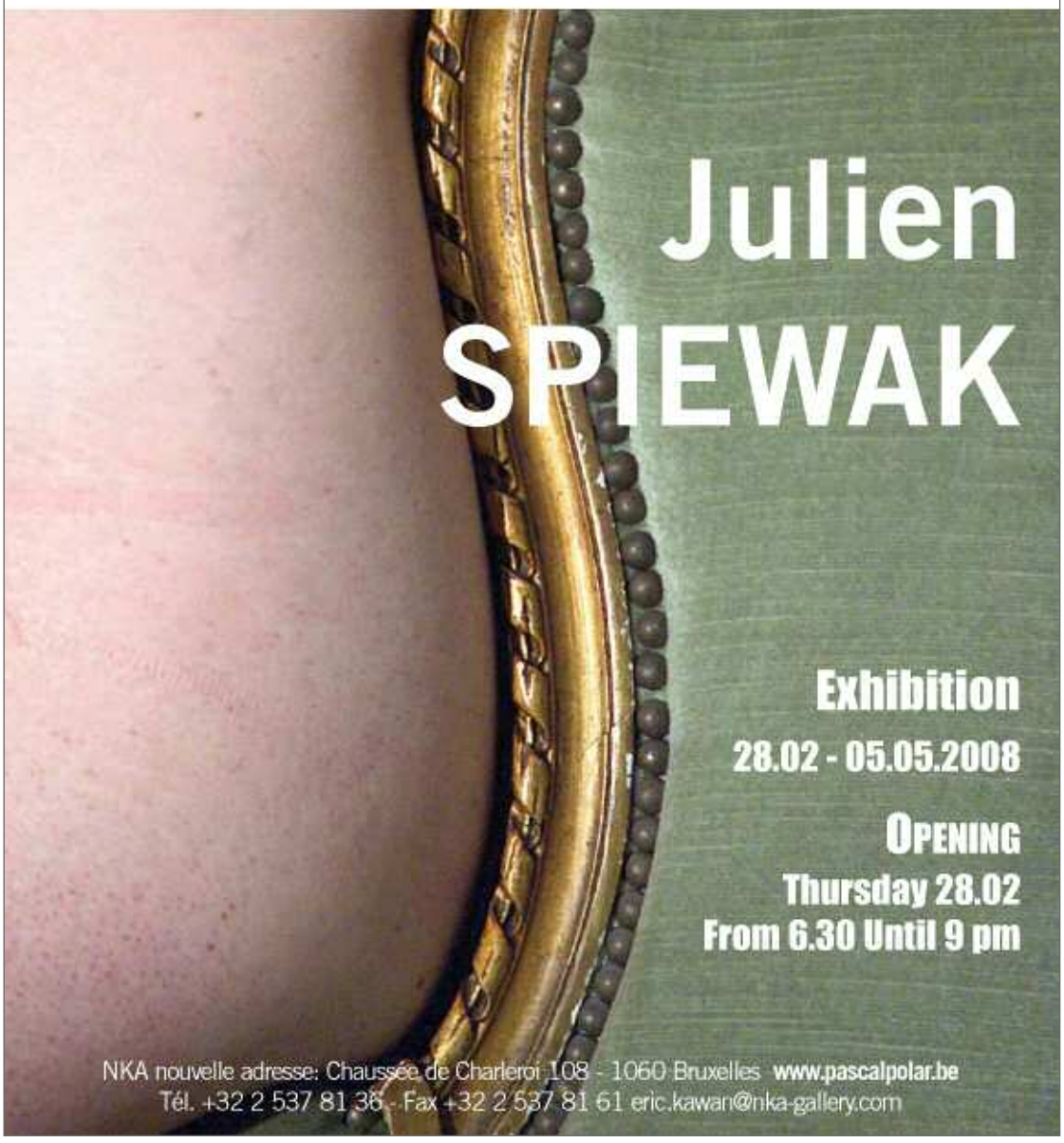
Open bar autour du photographe de 22h30 à Minuit
Live Mix Electro par Tony Truman de 22h30 à Minuit

YNOX MAGAZINE - La nouvelle référence PHOTO
231, rue Saint Honoré - 75001 Paris www.ynox.com

GALERIE PASCAL POLAR + NKA*

PHOTOGRAPHY

www.pascalpolar.be
BRUSSELS
Open Tuesday-Saturday
2 to 7 p.m. upon request
108, Chaussée de Charleroi
1060 Brussels - Belgium
Tél 32/2/537 81 36
Gsm 32/475/23 55 38
Fax 32/2/537 81 61
eric.kawan@nka-gallery.com



JULIEN SPIEW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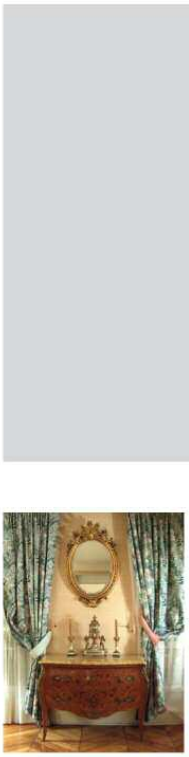
"Corps de style"

Corps de style propose des photographies mêlant corps et meubles prises dans des appartements de collectionneurs de mobilier d'époque. Mes clichés montrent corps et meubles étroitement liés. Les corps nus se positionnent et épousent les volutes du bois. Les personnes qui ont joué le rôle de « modèles » se sont adaptées aux formes grâce à la souplesse de leur corps.
L'homme, pense dompter son corps. Il le modifie par la chirurgie esthétique, virtuellement par le morphing, etc. Le corps est une donnée maniable, il s'adapte, se soumet et dans mes photographies au mobilier. Comme l'affirme David Le Breton, dans nos sociétés la malléabilité de soi, la plasticité du corps deviennent des « lieux communs ». Le corps est devenu pour nombre de contemporains une représentation provisoire, un gadget. Le corps est devenu un « kit », une somme de parties éventuellement détachables, une matière première à la disposition de l'individu lui-même saisi dans un bricolage sur soi. Mon travail n'est pas une « officine de la génétique », je ne greffe pas des fragments humains sur des matières inertes. Ce sont des greffes artistiques ou plutôt des ajouts humains qui prolongent les créations des artisans ébénistes et menuisiers au service de l'esthétique de mes photographies.
Dans mes photographies, le corps entier ou morcelé est bien présent, la chair lumineuse évoque la vie, le personnage n'est pas complètement réifié.

Julien Spiewak

Sans titre. 2005

Lit de style Louis XV, Marie. 2005



Commode d'époque Louis XV, miroir de style Louis XV, Carole, pendule d'époque Louis XVI, paire de bougeoirs du début du XIXème siècle.
2005

Commode d'époque Louis XV, Carole, paire d'embrases. 2005

BIOGRAPH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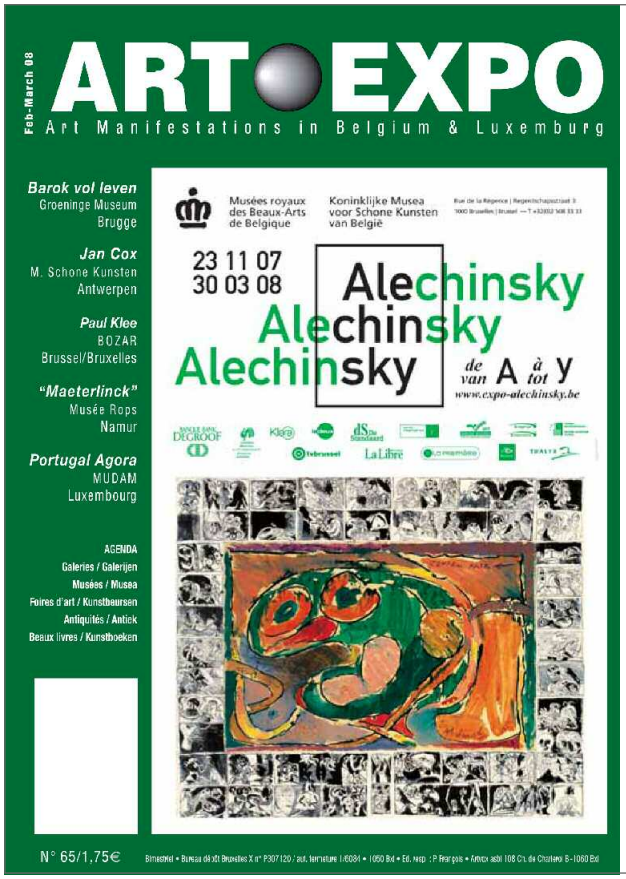
Julien SPIEWAK est né en 1984, il vit et travaille à Paris.

2004 - « Entre rêves et féminités » (Saint-Cloud, Pôle Métiers du livre).
2006 à 2007 - Reportages: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 - Contemporary Art Festival, Shangaï (China). Mission photographique « Rue de la Gare » (Paris, Mois de la Photo -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2007 - « L'art de l'intérieur, Présence-Absence », Exposition solo au Palais Royal de Paris.
2007 - « Doucement, nous sommes pressés » avec Andreas Serrano, Christian Boltansky ,etc. à la Heartgalerie, Paris.
2008 - « Corps de style », Galerie Polar + NKA* Photography, Bruxelles.

BIOGRAPHY

Julien SPIEWAK is born in 1984, he lives and works in Paris.

2004 - « Entre rêves et féminités » (Saint-Cloud, Pôle Métiers du livre).
2006 - 2007 - Julien Spiewak has made some pictures reportings as a photographer for Mission photographique JO 2008 - Contemporary Art Festival (CHINE, Shangaï) or Mission photographique « Rue de la Gare* (Paris, Mois de la Photo -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2007 - « L'art de l'intérieur, Présence-Absence » Solo exhibition at the Palais Royal in Paris, but also with an artist group for the exhibition « Doucement, nous sommes pressés » with Andreas Serrano, Christian Boltansky and so on, at the Heartgalerie in Paris.
2008 - « Corps de style » in Belgium for Polar + NKA* gallery, Bruxelles.



JULIEN SPIEWAK

"Corps de style"

28 février au 10 mai

vernissage le 28 février 18h30-21h00

GALERIE PASCAL POLAR + NKA*

PHOTOGRAPHY

NKA nouvelle adresse : Chaussée de Charleroi 108 - 1060 Bruxelles **www.pascalpolar.be**
Tél. +32 2 537 81 36 - Fax +32 2 537 81 61 eric.kawan@nka-gallery.com

Exhibitions In Your City

Polar + NKA
108 ch. de Charleroi, 1060
tél. 02/537 81 36
www.pascalpolar.be
pp@pascalpolar.be
Ma-Sa 14-19h

28/02-26/04 Julien Spiewak - Corps de Style (Photographie)

Julien Spiewak

La Petite Galerie
1A rue de Livourne, 1060
tél. 02/537 67 50
//lapetitegalerie.skynetblogs.be
lapetitegalerie@skynet.be

Please call the gallery for informations

Rollebeek Gallery 28
28 Rue de Rollebeek, 1000
tél. 02/512 20 22
www.rollebeekgallery28.com
rollebeekgallery28.jlc@skynet.be
Ma-Di 11-19h Sa 13-19h

>29/02 "Nos Artistes à L'Honneur" : J. Gascot (USA), O. Casse (B), C. Lescop (Canada), C. Lacout (F), JD. Miquel (SP), de printemps", toiles et oeuvres sur papier de quelques peintres de la galerie.

Theorema Art Gallery
39 rue Berckmans, 1050
tél. 02/537 04 54
galerietheorema@yahoo.gr
Me-Sa 11-18h

>15/02 Astrid Gekas, "Voyage d'Ame"
15/02-28/03 Christos Kechagioglou, "Jardin Secret".

L'Usine Gallery
40 rue du Doyenné, 1180
tél. 02/344 52 45
contact@l-usine-galerie.com
www.l-usine-galerie.com
Je-Sa 14-18h Di 16-18h et rdv

>09/03 Jean-Charles Delange, "refractions".

* The artwork called "refractions" created by the French artist Jean-Charles Delange contains the techniques of painting, sculpture and photography. In this order the process of creation is established in different stages of research, diverse shapes of the used material, the colours and the light.

Jean-Charles Delange

CHARLEROI

B.P.S.22 Espace de création contemporaine
Bld Solvay 22, 6000
tél. 071/27 29 71
bps22.hainaut.be
pierre_olivier.rollin@hainaut.be
Me-Di 12-18h

08/03-25/05 Wang Du, Reality Show.

* Le B.P.S.22 accueille la première exposition d'envergure, en Belgique, de l'artiste de renommée internationale Wang Du. Ce dernier a grandi en République populaire de Chine, avant de s'installer à Paris au début des années 80. Son installation dans la capitale française sera un déclencheur dans sa démarche artistique : Wang Du est en effet frappé par l'omniprésence des images au cœur de la ville. Celles-ci deviendront la source inépuisable de l'ensemble de son travail.

DEURLE

MDD
Museumlaan, 9831
tel. 09/282 51 23
www.museumdd.be
info@museumdd.be

17/02-06/04 Robert Kusmirowski

EBEN-EMAEL